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하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43장 믿음을 더하소서

『산상설교』 하권 제43장, 인쇄 170~183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6:31~33

> ❓ 먹고사는 걱정이 끊이지 않을 때, 믿음을 실제로 키우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 흐름 한눈에

앞 장이 '작은 믿음'의 원인을 진단했다면, 이 장은 믿음을 키우는 적극적인 방법을 다룬다. 로이드 존스는 주님이 명령만 내리지 않고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는 말로 이유까지 밝히신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논증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의식주 걱정에 지배당하는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삶이니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 둘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셋째, 걱정할 에너지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쏟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결론은 이렇다. 하나님께 가까이 사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커지고, 나머지 것들은 덤으로 더해진다.

📜 절별 정리

📜 1. '그러므로' — 명령에 논증을 붙이신 주님

로이드 존스는 31절의 '그러므로'를 쇠사슬의 고리 하나로 본다. 앞의 새와 백합화 논증 전체를 이어받아 “염려하지 말라”는 기본 명령을 다시 한 번 말하는 자리라는 것이다. 어떤 해석자들은 25절(“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과 31절(“염려하여 이르기를 … 하지 말라”)의 차이에 주목한다. 그래서 31절은 “속으로

강조하는 것은 따로 있다. 주님이 단순히 선언하고 끝내지 않으시고 “이는 (for)”이라는 말로 이유를 밝혀 주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논증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원리를 이해하면 반드시 더 큰 믿음에 이르게 된다.

1. 이 본문의 목적은 '작은 믿음'을 키우는 것
2. '그러므로'는 앞 논증 전체를 잇는 고리
3. '이르기를'의 차이는 본질적 문제가 아님
4. 주님은 명령에 이유를 붙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5. 논증은 세 요점으로 정리된다

> **마태복음 6:25**
> 같은 명령의 첫 진술. 31절과 비교되는 기준점
>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 **마태복음 6:31**
> 기본 명령의 반복. '이르기를'이 덧붙은 형태
>
>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 **마태복음 6:32**
> “이는 … 아시느니라”. 명령의 근거를 밝히는 논증
>
>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 2. 첫째 원칙: 염려는 이방인의 인생관이다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이방인은 율법과 선지자를 몰랐다. 요한복음 3:16의 사랑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방인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로 본다. 하나는 '우연론'이다. 모든 일이 까닭 없이 일어난다고 보는 견해로, 로이드 존스는 줄리언 헉슬리 같은 사람들이 가르쳤다고 소개한다. 다른 하나는 정반대인 '운명론'이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니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견해다. 두 견해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같다. 다음에 무슨 일이 닥칠지 늘 불안하니 둘 다 염려로 이어진다. 그리스도인의 견해는 이 둘과 다른 '확실성'이다. 삶은 눈먼 필연에 묶여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로이드 존스는 그리스도인도 이 두 이교적 견해 가운데 하나를 무의식중에 품고 살 수 있다고 경고한다.

1. 이방인 =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는 사람
2. 이교적 인생관은 우연론과 운명론 두 가지
3. 우연론도 운명론도 결국 염려를 낳는다
4. 기독교의 인생관은 하나님 손 안의 확실성
5. 신자도 무의식중에 이교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

> **마태복음 6:32**
>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첫째 논증의 출발점
>
>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 **로마서 3:2**
>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계시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
>
>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 **요한복음 3:16**
> 이방인이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
>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이 모르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 3. '먹고 마시자'의 철학과 영적 속물

인생이 불확실하다고 보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다. 그래서 그는 “다음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지금을 최대한 뽑아 쓰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철학으로 산다. 로이드 존스는 당시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들은 결과에 무관심하고 영원한 운명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 주님이 쓰신 '구한다'는 말은 아주 강한 말이다. 열심히, 계속해서 구하며 그것을 위해 산다는 뜻이다. 로이드 존스는 이방인들이 그들 나름의 인생관으로는 일관되게 '옳게' 행동하는 셈이라고 말한다. 진짜 문제는 우리도 그와 같으냐는 것이다. 그는 '영적 속물'이라는 표현으로 이 문제를 날카롭게 짚는다. 구원 교리를 물으면 정확히 답하지만, 일상 대화를 들어 보면 이교 철학이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먹을 것과 지위와 소유물 이야기를 늘 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괴로워한다. 주님은 무심코 내뱉는 말로 심판받는다고 하셨다. 그러니 평소의 말과 불평이 우리의 실제 인생관을 드러낸다.

1. 불확실한 인생관은 '오늘을 즐기자'로 흐른다
2. '구한다'는 그것을 위해 산다는 강한 말
3. 구원 교리는 정확해도 일상이 이교적일 수 있다
4. 지위·소유물이 기분을 좌우하면 이방인과 같다
5. 무심코 하는 말이 진짜 인생관을 드러낸다

마태복음 6:32

'구한다'의 강한 뜻. 열심히, 계속, 그것을 위해 산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마태복음 12:36

무심코 한 말로 판단받는다. 말이 인생관을 드러낸다는 근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 4. 자기 점검: 내 반응은 불신자와 다른가

로이드 존스는 여기서 청중에게 직접 묻는다. 의식주가 어렵고 전쟁·질병·재앙·손실이 닥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이 기독교인으로 행세하지 않는 사람의 반응과 같지는 않은가? 내 신앙이 내 인생관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가? 산상설교는 팔복에서 시작한다. 팔복은 빛이 어둠과 다르고 소금이 부패와 다르듯,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을 그린다. 본질이 다르다면 모든 일에 대한 반응도 달라야 한다. 마태복음 5장 끝에서 주님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다. 그리스도인은 '남보다 더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앙이 일상의 세부에까지 닿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작은 사람'이다. 이방인은 사건에 기계적이고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잠깐, 이 일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놓고 다시 보자”고 멈춘다. 그렇게 다시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라는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이 일어나는 중에도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다. 로이드 존스는 마지막으로 “혀를 주의하라”고 당부한다.

1. 위기 때의 반응이 신앙의 실체를 드러낸다
2. 팔복의 사람은 빛과 소금처럼 본질이 다르다
3. 그리스도인은 '남보다 더하는 사람'
4. 사건을 신앙의 관계 속에 놓고 다시 본다
5. 다시 보면 징계 속 사랑이 보인다

마태복음 5:47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마태복음 5:13~14

소금과 빛. 신자와 세상의 본질적 차이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누가복음 8:25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적용하라는 앞 장의 요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히브리서 12:6

사건을 신앙에 비추어 다시 볼 때 보이는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기독교인은 '남보다 더하는 사람'입니다."

📜 5. 둘째 원칙: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둘째 논증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32절)이다. 주님은 이미 새와 백합화 논증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도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잊는지 아시기 때문이다. 로이드 존스는 이 원리를 이미 다룬 내용이라고 밝히고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숙이 묻힌 구석까지 아신다. 히브리서 4:13은 같은 진리를 경고로 말하지만,

아니니 근심할 이유가 없다. 땅의 아버지도 자식 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데, 그것을 무한히 키운 분이 하늘 아버지시다. 로이드 존스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도 붙든다. 제자들이 다 흩어져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1. 주님은 우리의 잘 잊음을 아시고 반복하신다
2.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3. 하나님은 숨은 상처와 필요까지 다 아신다
4. 땅의 아버지의 돌봄을 무한히 키운 분
5.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 **마태복음 6:32**
> 하늘 아버지가 필요를 아신다. 둘째 논증의 본문
>
>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 **마태복음 6:26~30**
> 새와 백합화. 같은 진리를 이미 말씀하신 자리
>
>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 **히브리서 4:13**
> 만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하나님의 완전한 앎
>
>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요한복음 16:32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보장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다."

📜 6. 셋째 원칙: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셋째 논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주님의 뜻을 이렇게 풀어 말한다. "꼭 염려하고 싶다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염려하라." '구하라'는 열렬히, 그것을 위해 살라는 뜻이다. 거기에 '먼저'가 붙어 우선순위를 못 박는다. 주기도문도 같은 순서를 따른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한다. 로이드 존스는 이 말씀의 대상도 짚는다. 이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하고, 날마다 시간을 내어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6은 하나님이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복을 놓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전에서 무릎 꿇는 것이 곧 주님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명령한 것도 같은 뜻이다.

1. 염려할 거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려하라
2. '먼저'는 다른 무엇보다 앞선다는 우선순위
3. 주기도문도 나라를 양식보다 먼저 구한다
4. 신자가 되는 법이 아니라 신자의 사는 법

마태복음 6:33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셋째 논증의 본문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9~11

주기도문의 순서. 나라가 양식보다 먼저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베드로후서 1:10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이미 신자인 자의 과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1:6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4:17~18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니 환난 중에도 기뻐함

17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골로새서 3:2

>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버지에 대한 너희의 관계를 염려해라!”

📜 7. 의를 구할수록 믿음은 자라고, 나머지는 더해진다

주님은 '나라'에 '의'를 덧붙이셨다. 위의 것을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결과 의로운 삶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팔복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를 다시 말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기를, 더 거룩해지기를 구하고,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란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영적 생활의 절대 규칙이라고 부른다. 거룩해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가까워질수록 확신과 믿음이 커진다. 그러면 세상일이 그의 평정을 흔들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큰 관심이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작은 염려를 몰아낸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덤으로 주어진다. 그 실례가 솔로몬이다. 솔로몬이 부귀와 장수가 아니라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지혜와 함께 부귀와 수명까지 주셨다. 로이드 존스는 17세기 청교도들, 특히 퀘이커교도들이 부유해진 것도 같은 원리로 설명한다. 그들은 재물을 숭배하거나 쌓으려 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그의 의를 위해 살다 보니 돈을 헛된 데 던지지 않았고, 그 결과로 부해졌다.

1. '의'는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구하는 것
2. 거룩할수록 하나님께 가깝고 믿음이 크다
3. 큰 관심이 작은 염려를 몰아낸다
4. 솔로몬: 지혜를 구하자 부귀도 더해짐
5. 청교도의 부는 목표가 아니라 부산물

> **마태복음 5:6**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의 팔복적 뿌리
>
> 의에 주리고 목마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시는 약속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열왕기상 3:11~13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부귀와 수명까지 주심

11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베드로후서 3:18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람. 성화의 방향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3)

⚖️ 오해와 반론

📖 용어

이방인(이교도)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받지 못해 참 하나님을 알 수단이 없는 사람.

특별계시

하나님이 아브라함, 율법, 선지자,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특별히 알려 주신 것.

세상일이 아무 목적 없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보는 인생관.

운명론
모든 일이 정해진 대로 일어나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보는 인생관.

확실성의 이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모든 일이 그분의 확실한 다스림 아래 있다는 기독교적 견해.

영적 속물
구원 교리는 바르게 말하면서 실제 삶은 돈·지위·소유에 좌우되는 신자.

작은 믿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는 믿음을 일상에 적용하지 못하는 상태.

성결(성화)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과정.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의식주 걱정에 지배당하는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인생관이고, 그리스도인은 '남보다 더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처를 아시니,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 염려할 에너지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쏟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 거룩해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믿음이 커지며, 나머지 것들은 약속대로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